

[1~9] 《마천루 빌딩 네거리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 <마천루 빌딩 네거리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24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빠릿빠릿하게 해 놓는다.
- ② 분식점 할머니는 단골손님인 미용사 아저씨가 오면 서비스로 튀김을 올려 준다.
- ③ 철물점과 부동산 중간에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두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며 서로 말싸움을 한다.
- ④ 베트남 쌀국수 가게의 프영아잉 씨는 육수를 우리고, 공심채를 볶고, 국수를 건져 내며 점심 장사 준비로 바쁘다.
- ⑤ 손 만들집 아줌마는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다고 투덜대면서도 쓰레기통 옆에 참치 통조림을 놓아 둔다.

(정답:①)

2. <북극곰을 냉장고에 넣는 법>에서 수아와 관련된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북극곰 카나와 대화를 나누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 ② 수학 시간, 미술 시간에도 카나를 도울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
- ③ 미래 희망 직업을 조사해 가는 숙제를 하기 위해 동물원에 갔다.
- ④ 폭염주의보에도 카나를 보러 가려다가 엄마의 달콤한 제안에 외출을 미뤘다.
- ⑤ 스케치북을 들고 동물원에 찾아가 카나가 부탁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정답:⑤)

3. <취구멍>에서 인물들의 몸이 다시 커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부끄러움이 한껏 응축된 발톱을 깎아 내서
- ② 부끄러움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서
- ③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달라질 것이라고 마음먹어서
- ④ 뽀뽀주스를 마시고 부끄러움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 ⑤ 부끄러움은 성가시기 짝이 없는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깨달아서

(정답:③)

4. 수아가 밑줄 친 부분처럼 행동한 까닭을 바르게 짐작한 것은?

‘북극곰이 있어야 할 곳은 냉장고 안이 아니라 북극인걸. 그럼 북극곰 사육사 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희망 직업: 동물원 북극곰 사육사’란 글자 위로 지우개를 쥔 작은 손이 지나갔다. 글자는 이내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 ① 사육사 말고 하고 싶은 다른 직업이 생겨서
 - ② 동물원에는 북극곰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어서
 - ③ 북극곰 카나는 하늘나라로 떠나 더 이상 동물원에 살지 않아서
 - ④ 북극곰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장소가 북극이란 것을 깨달아서
 - ⑤ 풍성하고 아름다운 북극곰의 털이 연둣빛으로 바뀐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정답:④)

5. 이 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배려하고 어울리며 잘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
- ② 등장인물의 감정과 이야기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만화 같은 그림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
- ③ <마천루 빌딩 네거리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 모습이 흥미로웠어.
- ④ <북극곰을 냉장고에 넣는 법>에서 카나가 북극에 가 본 적이 없고, 자기 겉모습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는 너무 안타까웠어.
- ⑤ <쥐구멍>에서 부끄러울 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처럼 배경으로 ‘쥐구멍시’가 존재하고, 쥐들의 이름도 상황에 맞게 지어서 재미있었어.

(정답:①)

6. 아래 장면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③ 도토리 키 재기
- ④ 가재는 게 편
- ⑤ 식은 죽 먹기

(정답:②)

7. 밑줄 친 낱말의 맞춤법이 틀린 것은?

- ① 우주에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꼴로 슬라이딩했다.
- ② 변변찮은 돌보다 훌가분한 하나가 나올 때도 있다.
- ③ 용용죽겠쥬의 비아냥거림에도 그저 그러려니 했다.
- ④ 비뚜름하게 세워진 휴지통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 ⑤ 노란 액체를 피해 호들갑스럽게 의자 위로 올라섰다.

(정답:②)

8. [가]와 [나]를 읽고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위기의 순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출동한 마천루 빌딩 네거리 사람들의 활약상!

근사한 슈트에 망토 자락을 펄럭이며 등장해야만 슈퍼 히어로인가 뭐. 고 무줄 바지에 물방울 셔츠, 꽃무늬 원피스, 찢어진 청바지, 헤진 도복, 줄무늬 반바지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면 어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떠올릴 적에, ‘평범’이란 말속에 선량함과 따뜻함

이 깃들여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기준을 좀 더 다정한 쪽으로, 친절한 쪽으로 이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슈퍼 히어로 아닐까.

- <마천루 빌딩 네거리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 -

[나]

경기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산 학생이 최근 다산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난 3년 동안 모은 용돈을 기부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이 군은 다산2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이웃을 돕겠다며 저금통을 깨 31만 4220원을 전달했다.

이 군은 “처음부터 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용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우연히 본 유튜브를 보고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실천하게 됐다”라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 <시민일보>(2024.04.03.), 재구성 -

- ① 버스가 넘어졌을 때 순식간에 모여 사고를 수습하는 이웃들이 바로 슈퍼 히어로야.
- ② [나]의 학생은 큰돈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해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히어로라고 할 수 있을 거야.
- ③ 이웃들이 함께 위기에 대처한 것처럼 혼자만 기부하지 말고 친구들도 히어로가 될 수 있게 돈을 거두었어야 했어.
- ④ 슈퍼 히어로는 힘이 세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와 [나]처럼 작은 힘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 ⑤ 앞으로는 나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도와줄 거야.

(정답:③)

9. [가]와 [나]를 읽고 부끄러움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이 우리 쥐들과 다른 게 뭔 줄 아나? 바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야. 부끄러움은 인간을 무한히 성장시키지. 부끄러움은 계단 같은 거라, 딛고 나아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거든.

- 〈쥐구멍〉 -

[나]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올바른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은 우리가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는 데 꼭 필요합니다.

- 6학년〈도덕〉 -

- ① 성찰은 나의 잘못된 점이나 옳지 못한 점을 반성하는 것이구나.
- ② [가]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을 한다는 뜻이야.
- ③ 잘못을 지적받아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성찰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제나 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겠네.
- ④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그것을 외면하거나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모른 체한다면 그것을 딛고 성장할 수 없을 거야.
- ⑤ [가]와 [나]를 읽고서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어.

(정답:③)

[10~17] 《아이들이 줄줄이 이야기가 줄줄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10.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보라: 새로운 동네로 얼마 전 이사를 왔고, 반려묘 홍이를 키우고 있다.
- ② 정우, 정민: 3분 차이 쌍둥이인데 정우는 겁이 많고, 정민이는 눈치가 빠르다.
- ③ 윤서: 외동딸이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다.
- ④ 태오: 매번 지우개를 잃어버리고 덜렁거리지만 친구들 앞에서 우쭐대며 뽐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 ⑤ 수아: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며, 주인 없는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상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정답:④)

11.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로 알맞은 내용만 고른 것은?

- ㉠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 낙엽으로 고양이 그림을 그린 보라는 동네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
- ㉡ 정우는 고등학생 무리가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속상했지만 나서지 못하다가 나중에 빨간 장갑을 챙겼다.
- ㉢ 첫눈이 내리는 날 아이들은 장갑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실망했지만 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 ㉣ 정민이와 정우, 윤서, 수아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공원에서 빨간 장갑과 물건을 전시하고 주인을 찾아 주기로 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③)

12. 빨간 장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 힌트
- ② 그림을 그린 아이가 보라라는 증거
- ③ 아이들에게 추리하는 재미를 준 물건
- ④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단서
- ⑤ 아이들이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게 한 물건

(정답:④)

13.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소심한 성격인데도 장갑 주인을 찾아 주려는 정우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싶어.
- ② 공원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영수의 행동에서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
- ③ 전혀 연결점이 없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어느새 '우리'라는 하나 된 모습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 ④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윤서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활기찰 것 같아.
- ⑤ 낙엽 그림을 그린 보라와 장갑 주인을 찾아 주려던 아이들이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완성된 것처럼 감동적이었어.

(정답:②)

14. 밑줄 친 관용 표현의 뜻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정민이는 마른침을 삼켰다. → 몹시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다.
- ② 윤서는 얼굴이 두껍다. →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다.
- ③ 정우는 간이 콩알만큼 작아졌다. →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 ④ 보라는 기가 막히다. → 어떤 일이 놀랍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이없다.
- ⑤ 수아가 팔을 걷어붙이다. → 어떤 일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를 갖추다.

(정답:②)

15. 밑줄 친 단어 중 소리를 흉내 낸 말은?

- ① 고양이를 만들고 돌아온 날부터 콜록콜록 기침이 났다.
- ② 해가 뇌엿뇌엿 지고 있을 때, 영수가 나타났다.
- ③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
- ④ 정우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 ⑤ 보라는 며칠째 시름시름 아팠다.

(정답:①)

16. 보라의 낙엽 그림과 여우의 종이접기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우는 언제나 심각한 얼굴로 혼자 다니면서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좋아한다.

아래층에 토끼 점빵을 달게 하려고 빵에 못된 장난을 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토끼 자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결국 여우는 토끼 자매와 친해지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된다. 여우는 자신의 종이접기를 친구들에게 엉겁결에 선물하게 되고, 점빵에서 종이접기 수업도 열게 된다. 여우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친구를 사귀게 된다. 모두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비로소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

- 《초록 언덕 토끼 점빵》(밝은미래), 재구성 -

- ① 보라가 낙엽 그림을 그리는 것과 여우가 종이접기를 하는 것은 좋아해서 스스로 하는 활동이다.
- ② 보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낙엽 그림을 그렸고 여우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종이접기를 선물로 주었다.
- ③ 보라는 공원에 그린 낙엽 그림으로, 여우는 종이접기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④ 공원에서 낙엽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점빵에서 종이접기를 선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보라와 여우는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 ⑤ 보라가 낙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여우가 종이접기를 하는 것은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②)

17. [가]와 [나]를 읽고 실외 활동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채원이는 학급 회장처럼 척척 일을 진두지휘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더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알려 주었다. 쌍둥이는 채원이 말대로 눈을 뭉치기 시작했다.

“애들아, 우리 눈 고양이 만들고 있는데 너희도 같이 만들지 않을래?”

윤서는 지나가는 애들을 불렀다.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눈 뭉치는 걸 도와주었다. 여럿이 함께하니 일이 쉬웠다. 눈덩이가 순식간에 커다래졌다.

금세 눈덩이 두 개가 포개졌다. 수아가 30센티미터 자를 눈 고양이 엉덩이에 꼭 찍고 눈을 뭉쳤다. 꼬리를 만드는 거였다. 태오가 수아를 도왔다.

- 《아이들이 줄줄이 이야기가 줄줄이》 -

[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단 2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을 뿐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을 지나던 아이는 “친구들 거의 다 학원 다니고 놀이터에 와서 노는 애들은 적어서 잘 오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도 “아이들이 옛날처럼 나와서 노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며 “우리 손자만 해도 별의별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놀이터에 잘 못 온다.”라고 전했다.

바쁜 학업에 놀 권리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 놀이터가 외면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실외 놀이가 사라지는 모습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지연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신체 활동은 기초 체력과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소통 능력과 사회성, 협동 그리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까지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중부일보>(2024.01.25.), 재구성 -

- ① [가]의 아이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동했기 때문에 눈 고양이를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었다.
- ② [가]의 아이들처럼 밖에서 노는 시간도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 ③ 별의별 학원에 다녀 놀지 못하는 [나]의 아이들은 [가]처럼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부럽다고 느낄 것이다.
- ④ 전문가가 어린이 놀이터가 비어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집에서 하던 스마트폰을 놀이터에 나가서 해야겠다.
- ⑤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하면 사회성, 협동심, 문제 해결력 기르기 등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아주면 좋겠다.

(정답:④)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④)

21. 이 책을 읽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해 온 것이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는 점이 놀라웠다.
- ② 코로나 백신 개발 연구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 ③ 커털린 커리코가 연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달리기를 함께 하거나 연구소에 갈 때 격려해 주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 ④ 커털린 커리코가 mRNA 연구를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발빠르게 백신을 개발해 낼 수 있던 점을 기억해야겠다.
- ⑤ 커털린 커리코의 연구 덕분에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를 잘 극복해 냈으니, 앞으로는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답:⑤)

22. 이 책을 읽고 한 독후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커털린 커리코의 업적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보았다.
- ② 커털린 커리코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 편지글을 써 보았다.
- ③ 커털린 커리코가 받은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 ④ 책에 나온 커털린 커리코의 인터뷰 내용을 이용하여 책갈피를 만들었다.
- ⑤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 받은 사람으로 영국 아흔 살 여성이 선택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정답:⑤)

23.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낱말 뜻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단백질: 세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큰 분자.
- ② 바이러스: 동물, 식물, 세균 따위의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여 살아가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는 미생물.
- ③ 세포: 생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
- ④ 팬데믹: 전염병이 한 나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
- ⑤ 항체: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둘러붙어 그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단백질.

(정답:⑤)

24. 이 책과 아랫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준 알메이다(1930~2007)는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준은 10살 때 6살이던 남동생이 죽는 비극을 경험한다. 그 뒤 동생처럼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생물학 공부에 온 힘을 쏟는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선택한 길은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연구소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과학과 함께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준은 연구소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일, 즉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준은 이전과 다른 고배울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 세포와 바이러스 사진 찍는 법을 익힌다.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생각한 준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활동 방식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 먹고, 항체를 이용해 바이러스 사진을 찍는 데 성공한다. 준은 대학에 가지 못해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결국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밝힐 수 없었던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낸 준의 사진을 인정하고 감탄했다. 생물학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가 마침내 과학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바이러스 학자, 바이러스 탐정이 된 것이다.

-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준 알메이다》(두레아이들), 재구성 -

- ① 준과 커털린처럼 오랜 시간 과학 실험을 반복하며 연구에 힘쓰는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② 커털린과 준이 오랫동안 연구를 계속 이어 갔다는 점에서 과학을 정말 좋아하며 이를 즐기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연구에 열정적인 준과 커털린의 모습을 보고 그 일에서 기쁨을 느끼며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 ④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해 낸 준보다 mRNA 연구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커털린이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 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한 준과 연구가 성공할 리 없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커털린은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답:④)

25. 이 책과 아래 기사를 읽고 바이러스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WHO(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80%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첫 번째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전 세계에 넓게 퍼져 있고, 해마다 독감을 유행시키며 쉽게 변이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꼽은 위험 요소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이다. 미지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사람이 직접 바이러스에 접촉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좁은 우리에 많은 가축을 키우면서 동물에게도 감염병이 일어나기 쉬워졌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지 언제, 어떤 종류가 올 것인지 알 수 없다.

- <팜뉴스>(2024.05.28.), 재구성 -

- 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 감염병을 쉽게 퍼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니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 ② 앞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계속 유행한다고 하니 커털린 커리코의 mRNA 백신 기술과 같은 치료 기술이 더 필요할 것이다.
- ③ 치료 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니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알보면 안 되겠다.
- 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이 또 발생한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 약을 개발하기보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면 전염병을 이겨 내기 쉬울 것이다.

(정답:⑤)

[26~33] 《의좋은 형제는 광합성으로 벼를 키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26. 옛이야기와 연결된 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의좋은 형제가 벼를 키우는 이야기에서는 벼가 한해살이 식물이고, 수확 시기가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거인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훈장님과 꿀단지 이야기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혀에 있는 맛세포가 맛을 분석하고 뇌로 전달해 맛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심청이가 바닷속 용궁에 간 이야기에서는 물고기들은 부레로 숨을 쉬고, 지느러미가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선비의 갈모를 돌려주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뜨거워진 지표면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비구름을 만들어 소나기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④)

27. 책에서 설명한 과학 지식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난다.
- ② 동물의 등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뉜다.
- ③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
- ④ 식물은 물, 햇빛, 이산화 탄소로 광합성을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만든다.
- ⑤ 지구 온도가 올라가 기온이나 강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이상 기후라 한다.

(정답:①)

28.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같은 것은?

땅이 우르르 광광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

- ① 팔죽이라는 말에 군침이 싹 돌았어.
- ② 눈앞에 번쩍하고 밝은 빛이 나타났어.
- ③ 딸의 얼굴을 이리저리 보고 또 보았어.
- ④ 달콤한 꿀이 혀끝에 닿자 미소가 맴돌았지.
- ⑤ 어디선가 낮고 무서운 크르릉 소리가 들려왔지.

(정답:⑤)

29. 이 책을 읽은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책의 부제목을 보고 옛이야기에 과학이 어떻게 연결될지 예상해 보았다.
- ② 책의 차례를 훑어보고 제일 흥미가 가는 내용을 먼저 읽었다.
- ③ 책의 그림이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어 그림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며 읽었다.
- ④ 옛이야기에 연결된 과학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며 읽었다.
- ⑤ ‘전래동화가 품은 과학’ 부분에서는 낱말 풀이를 먼저 읽고 난 뒤에 과학 지식 설명을 읽었다.

(정답:③)

30. 이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알맞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 앞으로 과학 지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옛이야기를 읽어봐야겠다.
- ㉡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옛이야기도 과학 지식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져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햇빛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산화 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 ㉣ 얼마 전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받았었는데, 책에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에 가깝다는 내용을 보고 나니 안심이 되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③)

31. ㉠을 참고하여 ㉡~㉣에 넣을 낱말로 알맞은 것은?

-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 탄소로 (㉡)을/를 만드는 과정을 말해.
→ ㉠ 영양이 되는 성분.
- 갑각류는 껍데기가 자라지 않아서 (㉢)을/를 하며 성장해.
→ ㉠ 파충류, 곤충류 따위가 자라면서 허물이나 껍질을 벗음.
- 사람에게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이/가 있어.
→ ㉠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 또는 그런 능력.

	㉡	㉢	㉣
①	비료	부화	느낌
②	수분	탈피	오감
③	수분	부화	느낌
④	양분	탈피	감각
⑤	양분	해방	오감

(정답:④)

32. [가]와 [나]를 읽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 기후 변화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어!

원래 북극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겨울 정도로 추워.

그런데 여름 기온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고 있대.

- 지구 온난화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어.

또 기후 변화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될지도 몰라.

기후 변화가 인간과 동식물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야.

- 《의좋은 형제는 광합성으로 벼를 키워》 -

[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보다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둘째, 가전제품을 새로 살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을 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약속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시간 줄이기, 세탁기의 세탁 횟수 줄이기 등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에어컨과 보일러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할 때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육식을 주 1회 정도만 줄여도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초록별리와 떠나는 기후 여행》(아주좋은날) -

- ① [가]를 보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나라도 기후가 변하게 되면 환경이 달라져 새로운 농작물을 키워도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 ③ 더울 땐 가까운 거리도 차로 태워 달라고 했는데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걸어 다녀야겠다.
- ④ [나]의 방법 말고도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다.
- ⑤ 계속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동물도 사람도 모두 살기 힘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멸종되는 동식물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정답:②)

33. [가]와 [나]를 읽고 내세울 수 있는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가]

단맛이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해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병에 걸릴 위험이 커져. 또 달콤한 만큼 열량도 높아서 쉽게 비만이 될 수도 있지.

단 음식은 충치의 주된 원인이기도 해.

단 음식은 입맛을 떨어지게 해. 그래서 엄마가 해 준 맛있는 밥은 먹기 싫게 하고, 달콤한 간식만 먹고 싶게 만들지. 하지만 사람 몸은 그런 것들만 먹어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어.

- 《의좋은 형제는 광합성으로 벼를 키워》 -

[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즐긴다’는 의미로,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카페인이 함량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식습관은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 <매일 경제>(2024. 04. 25.), 재구성 -

- 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 주변 그린 푸드 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 ③ 아이들의 비만과 당뇨 발생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 ④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권해야 한다.
- 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라탕후루’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①)